

# 자율주행 택시에서 언론의 희망을 보았다

## 실리콘밸리 리포트

민경두 본지 발행인



### 가장 고도화된 AI 기술 실생활에 가장 안전한 인간 구현 AI 거대한 파도 올라탄 '휴머니티 저널리즘' 새 지평 열 때

기술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을 수 없을 것이란 고전적 관념은 이미 생성형 AI를 통해 사라진 상황에서 AI가 실생활을 통해 사람과 같이 물리적 행위까지 완벽히 해내는 고도화 기술이 자동차부터 본격화됐다.

이 같은 AI는 복잡하기 그지없는 자동차 주행 도로나 골목길 등 거리에서 로보 택시로 불리는 '완전자율주행 택시'로 구현됐다. 그 현장은 전 세계적으로 총성 없는 전쟁이 진행 중인 AI 글로벌 격전장 미국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한 샌프란시스코 일대다.

스카이데일리 민경두 발행인... 미국 실리콘밸리서 된다' 제하의 두 번째 현장 리포트는 완전자율주행 택시 경험을 통해 느낀 AI 시대 언론이 가져야 할 뉴 패러다임 희망이다.

### 실리콘밸리의 길을 달구는 핸들 없는 질주

AI 천재들이 모인 미래 인공지능의 심장부는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가 단연 으뜸이다. 이 지역은 마운틴뷰를 중심으로 산호세, 팔로알토, 산타클라라, 로스카토스 등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 속해 있는 주요 도시들이다.

마운틴뷰 시내 한복판에서 스마트폰 앱을 켜고 완전자율주행 택시의 이름인 '웨이모'를 호출하자 얼마 안 돼 하얀색 SUV 한 대가 차량 주변에 복잡한 센서들을 보여주면서 미끄러지듯 다가와 차분히 섰다.

차에 승차하고 착석하니 네이티브 스피커인 듯한 기계음이 영어로 안내를 했다. 당연히 운전석은 텅 비어 있을 것으로 예상은 했지만 그 자체로 놀라움을 주기에 충분했다. 운전석 오른쪽에 있는 화면에도 역시 안내 메시지가 떴다. 앱으로 작동해 주행이 시작되자 도착지까지의 거리와 도착 예정 시간을 알려 주었다.

앱으로는 승차할 좌석은 물론이고 승차 전후 에어컨이나 히터 온도까지 언제든 조절할 수 있다. 해변가 도시 때문인지 소나성 비가 자주 오는 탓에 출시 않은 날씨였지만 약간의 쌀쌀한 기운이 느껴져 승차한 뒤 히터 온도를 올렸다.

인류의 이동 역사가 증기기관에서 자동차 등으로 혁명적 사건들을 많이 기록해 왔지만 차원이 다른 이동 역사를 새로 쓰는 첨단현장에서 있음을 직감했다.

### 유령이 운전하듯 하지만 안전 우선 인간다운 주행

웨이모 차량은 스스로 핸들을 좌우로 돌리며 정말 부드럽게 운전했다. 완전자율주행 차량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으면 운전대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보일 수도 있지만 핸들 움직임이 신기하게 다가왔다. 그것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실제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했기 때문이다.

복잡한 시내 주행이나 자동차 전용도로는 물론 골목골목 길을 잘도 찾아다녔다. 사람이 보이면 속도를 줄이는 모습이 안전 우선의 주행이었다. 심지어 인도 쪽 가까운 차선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속도를 줄이며 서행 운전을 했다.

마운틴뷰 주택가 길들은 신호등이 많지 않아 예고 없이 건너는 보행자들이 많다. 차량은 이들 보행자들을 최우선시하는 느낌을 강렬하게 받았다.

차량은 좌우회전 방향을 바꿀 때 필요하다면 안전한 방식으로 끼어들기를 하는, 이른바 '채치기'까지 해 놀라움을 주었다. 하지만 다른 차량의 운전자 그 누구도 기계를 향해 욕설을 하지 않는다.

기계에 욕을 하는 것이 불필요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인 차량에 사람이 타고 있다는 배려가 우선인 태도였다. 인간과 기계 같은 방어 운전과 제한속도 지키기 등 또한 도로에서의 판단과 주행이 기계적이지 않았다.

기계처럼 과감하고 직관적인 성향보다 부드러운 '인간의 판단력'을 빼어 닮은 모습이다. 차량 지붕에서 정신없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센서부터 앞면 좌우에 미사일처럼 붙어 있는 설비 등 수많은 센서로 무장한 '베테랑 운전기사'의 외관이였다.

하지만 완전자율주행 차량은 이미 실리콘밸리에서 신기한 구경거리가 아닌 일상으로 정착했다. 시민들은 호출택시 우버를 주로 이용하면서 한국의 카카오 택시 등도 이용하고 있었지만 다소 비싼 요금임에도 완전자율주행 차량을 호출하는 것을 대부분 주저하지 않고 있었다.

### AI 격전지에서 읽는 뉴 패러다임 '저널리즘의 미래'

완전자율주행 택시는 단순히 운전자가 없다는 편리함 그 이상의 경험이었다. 특히



미국 실리콘밸리 일대에서 일상으로 정착한 완전자율주행 차량의 모습이다. 작은 사진은 운전자 없이 자율주행하는 모습.

스카이데일리



1. 민경두 본지 발행인(왼쪽)과 삼성 연구원이 AI 고도화시대에 인간과 기술의 문제 및 언론의 미래 역할에 대해 폭넓은 이야기를 나눴다.



2. 민 발행인이 삼성의 글로벌 AI 연구 산실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AI 센터를 방문했다.



3. 민 발행인이 미국 실리콘밸리 마운틴뷰에 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 구글을 방문했다.

스카이데일리

뉴스를 전달하는 언론사의 발행인에게는 기술의 고도화에 깊은 질문을 던지게 했다.

도로 위의 수많은 예측 불변 변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해 최적의 답을 내놓으면서 안전 운행을 하는 AI의 능력은 언론사가 추구하는 '데이터 기반의 정밀한 저널리즘'과 맞닿아 다가오는 치열한 현실과 오버랩됐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건사고들이 편집국을 점령할 때, 그렇게 다양한 이슈들 속에서 독자들을 보호하면서 정확히 전달해야 하는 과제는 언론사에게 끝이 없는 일상의 숙제다.

AI 시대는 이를 해결할 신의 한 수가 있지만 그 수가 가장 큰 악수도 될 수도 있기

에 오히려 휴먼 중심의 비전을 본 것이다.

수많은 도로 위 주행 상황을 더 많이 학습한 AI일수록 사고율을 낮추듯이 언론 역시 방대한 정보를 AI 도움을 받아 정제할 수 있는 효율을 추구할 수 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AI를 철저히 통제하는 방식으로 왜곡 없는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 것이 AI 시대 언론의 중요한 과제다.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승객이 안심하고 잠까지 청할 수 있는 '고도 기술에 대한 신뢰'는 언론사에서 AI가 언제 어디서든 인간기자에 의해 통제될 수 있는 모습으로 비춰졌다.

변화해야 할 때 새로운 패러다임에 적응할 희망을 갖게 된 것은 자율주행 택시를

이용한 경험에서 확신으로 굳어졌다. 미래의 미디어 역시 독자에게 보다 더 견고한 신뢰를 줄 수 있는 기술적 토대가 가능하다는 믿음이 심어졌다.

### 실리콘밸리 도전 속 '휴머니티 기반 의식'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 AI 전문가들은 직격 인터뷰에서 입을 모아 말한다. 기술의 끝은 결국 '인간'이라고 했다.

완전자율주행이 인간에게 '운전으로부터의 자유'를 주었듯이 언론이 준비하는 AI 저널리즘 역시 기자들을 단순 반복 업무에서 해방시켜 오직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통찰'과 '비판'에 집중하게 할 것이라

는 확신이 그것이다.

실리콘밸리의 야경을 뒤로하며 내려진 결론이 있다. 인류 역사 이래 가장 큰 산업 혁명이라는 AI의 거대한 파도는 이미 우리 발밑까지 와 있다. 이제 그 파도를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올라타 인류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는 '휴머니티 저널리즘'의 새 지평을 열 때임이 분명했다. 그 선두에 언론이 있다.

휴먼 저널리즘의 시대가 왔다. 전통적인 휴먼과는 다른 AI와 조화를 이룬 소통하는 휴먼이다. AI의 인정을 받으면서 동시에 AI를 통제하는 인간과 기술의 완전한 소통 휴먼 네트워크다. 실리콘밸리 탐방은 이를 증명할 시간이었다.

다시 새겨보는 — '이봐, 해봤어?' 도전정신

박정웅 지음 | 348쪽 | 25,000원 | 행복에너지

우리는 '잃어버릴 10년'으로 가고 있는가?

## 세계적 격동의 시기, 다시금 되돌아보는 현대 정주영 회장의 위대한 삶의 궤적

중동 건설시장 도전, 대한민국 최초의 대형 조선소 건설 도전, 현대제철 건설,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 대한민국이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 문턱까지 건너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은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의 발자취를 다양한 사진자료와 함께 뒤따라간다.

단순히 수박 겉핥기 식으로 그의 위업을 좇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 간부로서 직접 보고 들은 정주영 회장의 생생한 언어와 행동을 통해 글로벌 무한경쟁의 시대 속 우리에게 다시금 필요한 도전정신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을 구한다. 때로는 무모해 보이지만 혁신과 성장을 가져왔던 정주영 회장의 도전정신, 경영학의 태두 '피터 드러커'조차도 극찬했다고 알려진 그의 정신이야말로 우리에게 다시금 영감과 용기를 심어 줄 것이라고 저자는 이야기한다.